

# 노동자, 빈민과 함께한 가나이(金井愛明) 목사

스즈키(가마가사키 노동자)

최 정 석(일본선교사, 니시나리교회)역

## 노동운동에서 노동자마을 가마가사키로

가나이 목사님은 1931년 6월 21일, 나가노현 사쿠군 모치즈키마치(나카센도우의 여인숙 마을)에서 태어났다. 현립 모치즈키 고교 졸업 후 가족의 반대를 뿌리치고 교토로 나와 도시샤 대학 경제학부에 입학, 1954년 졸업 후 같은 대학 신학부 3년에 편입, 1956년 졸업, 같은 대학 대학원을 1958년에 졸업했다.

1956년 간사이 노동자 전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제1기 실습생으로, 1958년부터는 동위원회 전임이 되어 주로 총평계의 노동운동과 관련을 맺게 되었다. 처음 교토·니시진의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을 무렵 교토 YWCA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케다 치세코 씨와 알게 되어 1959년에 결혼했다.

1961년부터 오사카·나카츠의 오사카 북 전도소를 거점으로 간사키가와 지구의 영세 노동자들과 관계를 맺었고, 1958년부터 1965년



생전의 가나이 목사

까지 전국노조와 관련을 맺으며 사카이의 콤비나트(combinat) 노동자 실태조사에 나서게 되었다. 그곳에서 가마가사키의 일용 노동자의 존재와 실태를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작업복부터 구별되어 위험한 작업을 도맡아 일하는 일회용 노동력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나 조직을 강화시킨다 해도 그 테두리 바깥쪽에 있는 그들을 구할 수는 없다. 그렇

다면 스스로 그들 품에 뛰어들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보고 싶다.” (잡지 AERA 2001·11·26에서 발췌)고 고백하였다. 그리하여 목사님은 1967년 가족(아내와 아이)을 오사카 콤비나아트 근처의 사카이 집에 남겨둔 채, 단신으로 히가시시죠(현재·니시나리구 하나조노키타)의 이마미야 중학 동북쪽에 있는 바라크(산조 3장 다다미 일실의 베니어판으로 벽으로 나누어진 황폐한 집)에서 생활을 시작하였다.

### 스트롬 씨와의 만남

처음 1년간 가나이 목사님이 오사카항의 항만 일용 노동자로 일할 때, 독일인 선교사 스트롬 씨를 알게 되었다. 스트롬 씨는 1953년에 선교사로 일본을 방문, 매춘 폐지운동을 하는 가운데 전국을 돌다가 1963년 가마가사키에 들르게 되었다. 그 때 그녀는 “여기다!”고 생각했다. 1964년 니시나리구 미나미비라키에 거점을 두고 가마가사키와 관련을 맺기 시작한 그녀는 같은 해 니시나리구 산노에 산노 어린이 센터를 개설하여 이주했다. 하지만 그녀는 산노지역의 매춘업자들로

부터 집요한 협박을 받았다.

목사님이 스트롬 씨로부터 권유받아 산노어린이센터(현·사회 복지 법인 산노어린이센터) 2층에 사카이의 가족도 불러와 이주한 것은 1971년이였다. 거기서의 생활은 1974년 니시나리교회(현재 니시나리구 츠루미바시 3번가) 목사가 될 때까지 3년간 계속되었다.

스트롬 씨는 1973년 무렵부터 알코올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1976년 일본 복음 루터교회·희망의 집을 완성시키면서 거기로 활동거점을 옮겼다. 스트롬 씨는 가마가사키에 지대한 발자취를 남기고 1983년 독일로 귀국하였다. 다음은 스트롬 씨가 지은 『희망의 마을』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제가 가마가사키에 간 것은 1964년의 일입니다. 그 때부터 쪽 혼자였습니다. 동료가 없었습니다. 교회와의 연결이 점점 줄어들고 멀어졌습니다. 언제였는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나는 교회로부터 내버려진 것처럼 되어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1970년 가을에 가나이 아이메이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연결된 교회가 없어도 대화 상대가 생기게 되어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처음 가나이 목사님을 만났을 때의 일을 매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만나 뵈었을 때에 나는 집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 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가나이입니다”

“가나이? 아내?” (일본어로 가나이는 아내라는 의미) 가나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제 이름은 가나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안해요.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가나이 목사님은 노동자 차림이었습니다. 분명히 “가마가사키에 산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가족은 사카이 쪽에 살고 가나이 목사님 혼자 신이마미야역의 가까이 산조 3장 다다미 일실에 살고 계셨습니다. 거기는 방과 방이 뿔뿔이 जु지어 있고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노동자와 쥐와 바퀴벌레가 동거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이 목사님은 저를 알고 계셨으며 “무언가 함께 할 수 없을까?”라고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때(1970년)는 보모는 한 명 밖에 없고, 아이를 맡고 있는 시간도 길어서 힘에 부쳤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밤에도 일에서 떨어질 수 없는 때였습니다. 가나이 목사님은 그 때 아마도 본 궤도를 읽고 영향을 받아 노동자와 공동생활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뿌린 씨가 점점 커져 가는 꿈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 가마가사키 교오유카이(협우회)

1970년 12월, 스트롬 씨의 요청으로 아이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행사를 가진 것이 가마가사키 교오유카이의 시작이다. 거기에는 가나이 목사님 외에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하인리히 신부, 효광회의 타니 씨, 시스터·캣탄 씨, 나카지마 후미오 씨 등이 참석했다. 교오유카이에서는 매년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회의, 이마미야 식당(현재 후루사토의 집 1층) 경영, 월동식사 공급 응원 등을 실시했다. 교오유카이가 노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열심을 내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 10월 아이린 종합 센터가 완성되면서 센터 내에 사회의료센터가 개설되었다. 초대 소장인 ‘빨강 수염 선생님’으로 불리던 혼다 료우칸 선생님이 교오유카이에게 “노동자의 의료는 우리가 담당하니 당신들은 노동자들에게 싸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시오. 그것이 당신들의 역할이요”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교오유카이

사람들은 이마미야 식당이나 이코이 식당을 열어 실행해 나갔다. 가  
마가사키 교오유카이는 1988년에 가마가사키 기독교 교오유카이로  
개칭되었다.

### 이코이의 집(이코이휴식식당)

목사님은 가마가사키에 들어온 지 3년째인 1969년, 어느 지원자가  
구입하여 제공해 준 집을 이코이노이에(휴식의 집)로 개방했다. 1970  
년 9월 2일에 개소식을 가졌다. 이코이노 이에의 책임자가 된 목사님  
은 종교, 의료, 교육 등 세 가지 활동을 크게 내세웠다. 당시 주간  
프로그램을 보면,

화요일: 독서회·성서 연구회 7시-8시 반

수요일: 학습교실, 초등학교 6시-7시, 중학 6시-8시

목요일: 상담일·카운셀링 법률·교육·의료·심리

토요일: 학습교실, 초등학교 3시-4시, 중학 3시-5시

일요일: 저녁예배 7시-8시 반

무료 학습교실에는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다. 전술한 히가시  
시조의 바라크 시대부터 함께해온 16명의 학생들과 근처의 아이들이  
함하여 30명 가까이 되었다. 또 산노 어린이센터와 합동으로 캠프활  
동 등도 갖게 되었다.

1974-1975년에는 이코이노이에의 집에 야간 진료실을 개설하여  
X레이에 의한 결핵 진단을 실시했다. 그리고 전술한 것처럼 혼다  
료우칸 선생님의 말에 힘입어 식당 '이코이'를 개설했다. '마미야 식  
당'이 고령자들에게 값싼 식사를 제공하였다면 '이코이'는 현역 노동  
자들에게 싸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코이'의 간판에  
있던 '보리밥, 현미밥', 그것이 가나이류의 영양학이었다. 목사님 스  
스로 '음식점 조리사'가 되어 요리 솜씨를 발휘했다.

“어떻게 하면 가마가사키 노동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열심히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나도 병드는 인간이므로 이코이 식당을 통해 극히 중요하고 일상적인 식생활을 하나의 방법으로 시도해 보려고 했다. 처음에는 혼다 선생님과 한 이야기를 생각했다. 현미와 채식을 중심으로 해 나가려고 결심했다.”

“무엇을 위해 건강을 지키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두지 않으면 이기적인 기분이 들게 된다. 세계평화와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점을 짚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 현미나 채식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와 확대를 가지고 평화와 행복이 어떻게 관련 되는가 하는 것이다.”

“가마가사키에서 소량의 현미와 채식을 먹으며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예전에는 얼마나 싸게 공급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둘도 없이 귀중한 생명을 지키며 안전한 것을 자신도 먹고 가마가사키의 노동자들에게도 제공해서 서로가 건강을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완전식에 가까운 현미식을 사람들에게 권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이라 생각한다”(1989년 11월 강연 “가마가사키의 바람”에서 발췌) 증언에 의하면 가나이 목사님이 현미식을 고집하는 것에는 1981년 자신이 결핵으로 쓰러져 1년 이상 입원생활을 보낸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

또 다른 커다란 식당의 일은 주먹밥을 배식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로 주 4일 이상 약 5백 개(많을 때는 1200개)의 주먹밥을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대량의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삼각공원에서 나누어 주었다. 이코이식당은 목사님이 쓰러진 1995년까지 이어졌고, 주먹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한국방문

가나이 목사님이 맡게 된 니시나리교회 부근은 일찌기 일본 최대의 ‘차별 부락’이다. 니시하마 부락(현 나니와구 나니와니시·나니와히가시)에 인접해 있으며 조선인들도 많이 이 지역에 유입되었다. 목사님이 니시나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1974년 이후에도 이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밀입국자’로서 출입국관리국에 발각되어 강제송환되었다. 차별받는 부락민·재일 조선인·밀입국 한국인 등 목사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직접 만나 차별의 실태를 알게 되었고 매우 마음 아파했다. 이런 연유로 그는 한국방문을 결의하였다.

목사님의 한국방문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계속되었다. 이 때 일본 유학 중에 이코이 식당을 3년 간 도운 최정석 목사님과 그 부인인 박희진 씨가 동행하면서 통역하였다. 당시 한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눈은 매우 차가웠다. 목사님의 한국방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제국주의 36년간의 조선 식민지 통치 과정에서 행해진 끝없는 학살과 약탈에 대한 긴장감 속에 진행된 사죄의 여행이었다. 마지막 해에 제암리 교회를 방문하였다.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조선독립운동의 발전에 경악한 일제 군경이 각지에서 학살, 방화, 검거의 만행을 반복했는데 제암리교회 사건은 그 중 하나이다. 동년 4월 15일, 보병 제 79 연대의 아리타 토시오 중위가 인솔하는 20여명의 군경은 주민 20여명을 제암리교회에 집어넣어 주민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나오는 사람은 총칼로 죽였다. 주민들이 저항의 기색을 보이자 밖에서 일제 사격을 가해 학살한 후 방화해 마을의 20가구를 다 태웠다. 이 사건이 특히 유명하게 된 것은 서양인 선교사나 영사 등이 이 사건을 국제여론에 호소했기 때문이다. -역자 주) 목사님이 사죄의 여행에 동행한 사람은 목포 출신의 최정석 목사였다. 최 목사는 2001년부터 가족과 함께 니시나리교회 협력선교사로 일하고 있다.

## 투병 생활

목사님은 일본술을 매우 좋아했다. 언제나 ‘가솔린’을 보급하고 있

었다고 전해진다.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1980년 결핵·당뇨병으로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8회 뇌졸중으로 쓰러져 재활훈련을 받았다. 목사님은 끈기있게 노력했다. 좋아하던 술도 1980년 입원 이후 딱 끊었다. 그러나 1997년부터 언어가 불분명해졌다. 그 즈음부터 목사님은 노동자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 인터뷰 발췌

### - 35년 지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노동자와 함께 죽어 갈 수 있을 지가 중요하다. 병의 문제, 죽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병에 걸려서 병과 싸우고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치며 인생을 끝내 간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신체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고 생각도 좁아지기 쉽지만, 가능한 시야를 넓게 해 나가고 싶다. 사람은 언제나 죽음의 문제와 마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 자신도 문제 삼고 싶다.

### -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몸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20년 전, 50세 때 결핵으로 입원한 적이 있지만, 그 때는 죽음을 생각하진 않았다. 2000년 부활절 전날, 뇌경색으로 입원했었다. 소강상태가 계속 된 후 다 죽어갔다. 그 날은 가족도 집에 돌아가고 혼자 식사 중에 음식이 목에 걸려서 숨을 쉴 수 없게 되었다. 가족들이 병원으로 불러왔다. 숨이 돌아와서 주위 분들에게 지옥에 다녀왔다고 농담을 했다. 10분 정도 숨이 막혔었다. 그 이후 실제로 인생관이 바뀌었다.

### -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입니까?

69세였는데 내 자신과 가마가사키 노동자의 죽음이 겹쳐보였다.

“아리가토요 아리가토요”(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이후 목사님은 양로원 생활을 보내다가 2007년부터 센본병원에 입원하셨다. 11월 12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사님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말로 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가족들 전원의 의견은 일치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것이 틀림 없다” 라고. 그렇게 목사님은 76년의 생애를 마감했다. 목사님의 시신은 목사님 유언에 의해 병원에 기증되었다.

## 고인의 뜻은 영원히

2008년 4월 28일, 오사카·나니와 교회에서 ‘가나이 아이메이 기념회’가 개최되었다. 간사이 지역 각지는 물론 쿠마모토, 히로시마, 나고야 등 전국 각지에서 백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 이 사람들은 일찍이 목사님과 뜻을 함께하고 활동해 온 사람들이며, 지금도 각지에서 그 뜻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의 육체적 생명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살아생전의 뜻이 대를 이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때 그 뜻은 영원하다. 가마가사키 노동자와 생사를 함께 하려 했던 가나이 목사님의 뜻이 영원한 것임을 확신한다. 農